

시력을 회복하자

성경말씀: 계3:14-22

안테르센의 별거벗은 임금님, 허영심 많은 왕, 두 명의 재봉사, 근사한 옷

이들이 지어준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다.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함.

왕은 자기가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봐 "오- 정말 아름다운 옷이군"하며 그 옷을 받았다.

신하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사기꾼들은 돈을 받고 도망치고, 왕은 그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다. 왕이 별거벗고 있다.

어른들은 오해받을까봐 정말 멋진 옷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때 한 꼬마가 말했습니다. "어 별거숭이잖아? 아무 옷도 안 입었는데?" 그러자 사람들도 "맞다,

맞아. 아무 옷도 안 입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왕은 부끄러웠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진리를 추구하려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떤가? ★★★

계시록의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지역 교회, 다양한 모습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 눈 먼 교회, 이 교회는 특히 말세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님의 눈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22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브루기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부유한 상업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의 부인인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름.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으나 로마가 BC 190년경에 아시아(Asia) 지방을 만들면서부터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은 고급 검은 양털과 브루기아 산 안약 가루 등으로 유명했다.

이곳에는 물이 귀하여 북쪽으로 6.5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통해 온천물을 끌어들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도관을 통해 흘러온 온천물은 이곳에 도착하면 식어서 덥지도 차지도 않는 물이

되었다. 또한 이 물은 광물질이 섞여 있어 마시기에 부적당하므로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는 선언과

일치하고 있다(16절). 또 옆의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14절)

예수님은 각 교회의 사정을 아시기에 각 교회에 가장 합당한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X-ray

아멘(진실하다, 고후1:20; 계22:21), 영어로 '진실하다'(truth)는 히브리말로 '아멘'이다. 요14:6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다시 한 번 아멘 강조)이시다.

그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을 밝히려 하신다.

이 교회의 문제: 진리가 희미하다. ★★★

창조와 진화, 구원, 성경, 성화, 심판, 부부 생활, 가치관

"새 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아니다. 항상 있다. 기존 멤버들이 무뎌져서 모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새로운 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 ★★★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골1:15-16):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말한다.

히4:12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전혀 칭찬하지 않는다.

그 이유: 이 교회는 스스로 자랑하고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이 없다. ★★★

1. 열정을 잃었다(15-17).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마음: (1) 뜨거운 마음(눅24:32), 차가운 마음(마24:12), 미지근한 마음(계

3:16), 차가우면 느끼기라도 한다. 미지근한 마음: 편안하게 느끼고 만족하게 느낀다.

건물, 현금, 목사 학위, 교파 자랑, 대형 교회로 가는 이유: 일종의 안위감 ★★★

골로새의 찬 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 미지근해진다.

사도 바울의 권고: 영이 뜨거워야 한다(롬12:11).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뜨거운 기도(골4:12)
금요 기도회에 모여야 한다. 뜨거움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뜨거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동권 형제
바울은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도 보내라고 지시함(골4:16).

미지근한 콜라, 커피: 열을 넣거나 빼야 된다. 빼는 것은 안 되므로 넣어야 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연료를 넣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나는 부자다. 필요한 게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

예수님의 말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15:5).

이상하게 물질의 풍요는 언제나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

교회 역사: 가장 순수한 교회, 가장 타락한 교회

교회의 열정과 순수성은 핍박과 상관이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 나는 어떤가? ★★★

2. 가치관을 잃었다(17-18).

서머나 교회, 가난했으나 주님은 부자라고 말한다(2:9).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가난한데도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말한다.

교회 타락의 이유: 사역의 성공 여부를 물질적인 풍요의 통계에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한다.

교회들의 주보를 보라. 대개 건물을 그려 넣지 않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고후8:1-2, 마케도니아 교회

해결책: 불로 정제한 금을 사야 한다. 이것은 핍박과 희생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살려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

3. 시력을 잃었다(18).

여기 사람들은 시력을 잃었다. 현실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거절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만족스러워 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보여 줘도 모른다. 신대준 형제의 사례: 킹제임스 성경

벤허1:5-9,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퇴화된다. 영양실조가 되면 눈이 먼다.

해결책: 하늘의 안약을 넣어야 한다. 라오디게아의 안약 말고

눈은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창조의 시작).

일단 눈을 떠야 한다. 그 뒤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

눈을 떴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

4. 옷을 잃었다(18).

안데르센의 별거벗은 임금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옷을 입지 않고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별거벗고 있다. 성경에서 별거벗은 것은 패배와 수치를 뜻한다.

예수님의 신부는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다. 성도들의 의(계19:8)

구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성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분배된다.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른다.

예수님의 권고(19-20절)

1.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19절). 히12:5-6, 우리도 시련을 당한다.

2.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19절). 좋은 성도들도 때때로 낙담에 빠진다. 디모데(딤후1:6)

3. 즐거움의 초청(20절), 믿는 자들을 향한 초청. ‘누구든지’ 개개인이 돌이켜야 한다. ★★★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잃어버렸다.

이들의 건물, 프로그램은 좋으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부응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는 교제를 시작한다.

그러면 저녁 식사 자리가 왕좌가 된다(21).

은혜의 왕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린다(히4:16).

결론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